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배포일시	즉시 배포 / 총 6매(본문 2, 붙임4)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	담당 자	· 과장 김홍락, 사무관 김기현, 주무관 홍광표 · ☎ (044)201-4208, 4217
보도 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철저한 방역관리 속에 사이판 여행길이 열립니다

- 6.30일 한-사이판(미국령 북마리아나제도), 트래블 버블 합의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6.30일(수) 서울 롯데호텔(서울 소공동 소재)에서 사이판(미국령 북마리아나제도)와 여행안전권역(트래블 버블) 시행 합의문 서명식*을 가진다고 밝혔다.

* 황성규 제2차관 - 랄프 토레스(Ralph DLG Toress) 북마리아나제도 주지사

- 이번 서명식은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6월 9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발표한 “여행안전권역 추진 방안”의 후속 조치로,
- 이번 합의를 통해 코로나-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방역 안전을 확보하면서 격리조치에 대한 부담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열리게 되었다.

□ 양국 간 합의내용에 따르면,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하여 여행객은 ▲양국 국적자·가족 등으로 자국 보건당국이 승인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4일*이 경과한 단체 여행객으로, ▲자국 보건당국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** 및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.

* 화이자, 모더나, AZ는 2차, 안센은 1차 접종 후 14일 (우리나라 및 사이판 동일)

** 종이증명서(양국 모두 해당) 또는 전자예방접종증명(COOV앱, 한국에만 해당)

○ ▲현지 도착 당일 코로나19 검사 및 지정된 호텔 객실 내에서 대기 한 후 음성확인이 되면 본격적인 여행을 즐길 수 있다.

□ 북마리아나제도 정부는 사이판 현지에서 우리 국민의 방역안전을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바,

○ ▲트래블 버블 전용 숙소 지정, ▲백신 접종완료 직원의 여행객 응대, ▲전담 여행사를 통해 사전 방역안전을 확보한 동선으로 이동, ▲현지 여행사를 통한 방역관리전담사 지정 및 확진자 대비 전담 병원 운영 등 여행객들의 안전에 대비하고 있다.

* 북마리아나제도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는 183명(이중 147명(80.3%)은 해외 유입자이며, 내부 확진자는 36명(19.7%)에 불과)이며, 백신 2차 접종완료자는 전체 인구의 63% 수준임(6.29일 기준)

** 가장 최근 발생한 확진자도 해외 유입자로 5.27일 발생

□ 이번 합의에 따라 실질적 여행이 가능한 시기는, 현지 방역조치 사전점검 및 여행사의 모객을 위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이르면 7월말~8월초로 예상된다.

□ 국토교통부 김홍락 국제항공과장은, 이번 한-사이판 트래블 버블 체결이 “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억제되었던 우리 국민들의 여행수요에 부응하고, 항공 및 관광사업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”면서, 앞으로도 “방역우수 국가와 트래블 버블 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김기현 사무관(☎ 044-201-4208)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1. 트래블 버블 통해 사이판을 여행할 수 있는 관광객의 자격요건은?

□ 사이판을 관광하고자 하는 여행객은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4일*이 경과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자 및 외국인 가족이 해당됨

* 화이자, 모더나, AZ는 2차 접종 후, 안센은 1차 접종 완료 후 14일

○ 또한, 여행기간 중 방역안전을 확보를 위해 여행사를 통한 단체여행객으로만 한정함

2. 실제 사이판으로 여행가능한 시점은?

□ 여행사와 항공사의 준비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거나,

○ 모객은 오늘 발표 이후 즉시 가능하며, 실제 시행시점은 우리나라의 현지 사전방역점검 과정을 거쳐 7월말 또는 8월초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봄

3. 백신접종완료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절차 및 방법은?

□ 사이판 입국 시 예방접종 증명서의 진위확인 은 사이판 정부 보건청 소속 담당 직원들이 공항에서 확인하며, 종이 예방접종 완료증명서 또는 모바일 앱(COOV)을 활용하여 증명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계획임

* 앱(COOV) 영문 서비스 구축 협의 중(질병청, 7월초~)

- 관광객은 항공기 하기 후, ①세관 및 검역절차를 완료하고 ②Baggage belt에서 짐을 수령한 후 공항 내 별도로 비치되어 있는 ③부스(Booth)에서 증명서 진위 절차를 거치게 됨

4. 우리국민이 트래블 버블을 통해 사이판 여행 시 어떤 절차에 따라 여행이 이루어지는지? (동선 제한 등)

□ 사이판 도착 후, 모든 여행객은 우리나라에서 출국 3일전 발급 기관에서 발급받은 PCR음성 검사확인서 제출

- (1일차) 공항 도착 후, PCR 음성검사 실시 및 전용버스를 이용하여 전용호텔 지정 객실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 (통상 24시간 이내)

- (2일차~) 음성 판정 시 격리면제 및 여행사 일정에 따라 여행 실시

* 장기 여행 시 입국 후 5일차 PCR 2차 검사 실시

- (귀국 3일전) 귀국을 위한 PCR 검사 실시

- (귀국 후)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격리면제

* 모든 여행은 여행사의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전담 여행사의 인솔하에 진행되며, 리조트 내에서의 자유활동을 제외하고는 시내 이동 등 개인적 이동 시에는 여행사에서 관리·계획

5. 트래블 버블을 통한 여행기간 동안 여행객에 대한 방역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?

- 사이판을 여행하는 모든 여행객은 공항 도착 시부터 귀국 시까지 철저한 방역 보호 관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여행할 계획
 - **(공항)** 시설 소독스테이션 및 투명보호장벽, 승객 열 스캔 등 방역을 위한 기구 설치 등
 - **(호텔)** 화상카메라 설치 및 방문객 출입 관리, 호텔 내 전직원(전용차량 운전자 포함)은 **백신접종을 완료한 직원**으로만 배치
 - * 수용인원 최대 **75%** 제한(초기), 엘리베이터 **4인 이상** 탑승 금지, 객실 소독 및 소독제 비치 등
 - **(여행 중)** 방역전담관리사를 운영하여 방역지침 교육·준수, 주기적 체온측정, 동선 관리 등 여행객들의 방역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

6. 사이판 내에서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계획은?

- 여행 중 양성 판정 시, 전담 치료시설로 즉시 격리·치료 실시
 - 양성 판정을 받은 자는 즉시 사전 준비된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 지정된 의료시설로 격리되어 치료 실시
 - * 사이판 현지에는 86개 침상, 151개 응급 입원실, 50여개 집중치료실, 약국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, 치료비용 등은 전액 무료 지원 예정

7. 인도발 델타변이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등 상황이 좋지 않는데 트래블 버블 추진이 성급한 것은 아닌지?

- 트래블 버블은 국가 간 상호적 방역이 안전한 방역신뢰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, 그 대상도 백신접종을 완료한 단체여행객만 가능
 - 아울러, 사전에 양국간 합의에 따라 철저히 방역조치가 완료된 일정만 여행이 가능하므로, 양 당국과 여행객들이 방역수칙을 잘 준수한다면 방역우려는 매우 낮다고 생각됨
 - * 사이판 내 백신접종완료자는 전체 63% 수준('21.6.29일 기준)
 - 또한, 합의 이후에도 양국 또는 일방에서 확진자수 증가,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방역상황이 악화될 경우, 양국 합의에 따라 개시일자를 연기하여 상황 안정 시 시행 가능하고,
 - * 싱가포르 - 홍콩 사례에서도 '20.10월 트래블 버블 합의 이후 방역상황을 고려, 몇 차례 연기한 사례가 있음 (개시시점 검토 중)
 - 시행 이후 방역상황 악화 시에도 일시 중단할 수 있는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합의문에 포함함